



\$5 신권
 더욱 향상된 안전성, 효율성 및 보안성



요약 자료

\$5 신권 지폐에 대한 진실

새롭게 도안된 \$5 신권의 특징

- **동일한 가치:** 신권과 구권 지폐는 모두 완전한 액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함. 실제로, 1861년 이후 발행된 미국 통화는 모두 현재까지 완전한 액면 가치 그대로 상환 가능.
- **미국적인 외관과 느낌:** 새로운 미국 지폐 도안도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을 유지함. 신권 지폐는 구권과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다 개선된 초상화와 역사적 이미지가 담겨 있음.
- **현명한 선택:** \$5 신권의 새로운 보안 기능에 대한 주지 요망. 소비자들은 현금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힘들여 번 돈을 보호할 수 있음. \$5 지폐는 1990년 처음 도입된 숨은 그림과 안전띠로 인해 더욱 확인하기 용이해짐.
 - 이제 \$5 신권에는 두 개의 숨은 그림이 있음. 커다란 숫자 “5”의 숨은 그림이 초상화 오른쪽의 빈 공간에 배치되면서 \$5 구권에 있던 링컨 대통령의 숨은 그림 초상화를 대체. 두 번째 숨은 그림은 작은 크기의 숫자 “5” 세 개로서 \$5 신권의 초상화 왼쪽에 추가.
 - \$5 신권에 새겨진 안전띠는 수직 방향이며 이제 초상화의 오른쪽에 배치됨. 지폐 양면에서 이 안전띠를 따라 “USA”라는 글자 다음에 숫자 “5”가 교대로 나타남. 안전띠는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 파란색으로 빛남.
- **도안에서 보강된 특징:** 구권 지폐와 마찬가지로 \$5 신권에도 섬세한 배경색과 미국의 자유의 상징이 도안에 반영되어 있음.
 - 앞면의 링컨 대통령 초상화와 뒷면의 링컨 기념탑 삽화를 둘러싼 타원형 경계선이 사라짐. 양면 모두 제판이 보강됨.
 - \$5 지폐에 있는 자유의 상징은 독수리와 방패로 구성된 미국 국장임.
 - 배경색은 지폐 중앙에서 밝은 보라색이며 가장자리로 가면서 회색으로 변화.
 - 지폐 앞면에는 보라색 별들이 원호 모양으로 대통령 초상화와 국새를 둘러싸고 있음.
 - 지폐 뒷면에는 시력이 나쁜 사람도 액면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커다란 보라색 숫자 “5”가 있음.
 - 지폐 앞면 초상화 왼쪽과 뒷면의 링컨 기념관 삽화 오른쪽에 “05” 표시 노랑색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음.



\$5 신권
더욱 향상된 안전성, 효율성 및 보안성



요약 자료

미국 지폐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. 공공 교육, 범 집행, 보안 기능 강화가 조합되면 잠재적인 위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음.

- 화폐 위조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아니지만, 개인 또는 기업이 위조 지폐를 받았을 경우 심각한 손실이 될 수 있음.
- 미국 정부는 모든 액면에 걸쳐 위조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, 새로운 도안과 새로운 보안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화폐 위조범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.

\$5 신권의 원활한 도입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대중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.

- 위조 화폐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, 일반 대중이 각 화폐에 있는 보안 기능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인지한다면 위조 방지가 훨씬 쉬워질 것임.
-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구축하고 미국과 전세계에서 새로 도안된 지폐의 원활한 도입을 보장하는 국제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 착수함으로써, 미국 지폐 사용자가 \$5 신권의 도안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신권의 보안 기능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.
- 대개 위조 방지의 일선에 서게 되는 현금 취급자가 보안 기능과 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. 또한 뉴스 매체를 통해 현금 취급자, 기계 장비 제조업체, 산업 단체,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됨.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소매업체, 금융기관, 기업이 자사 현금 취급자에게 신권 지폐의 보안 기능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전력 지원.
- 신권 발행 관계 기관은 2007년부터 자판기 및 현금 관련 기계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기계에 \$5 신권을 사용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토록 하고, 2008년 3월 13일 신권의 유통 전까지 장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력하여 작업을 추진해왔음.